

Daily Auto Check

2020. 6. 8(Mon)



자동차/타이어

Analyst 김준성

02.6454-4866

joonsung.kim@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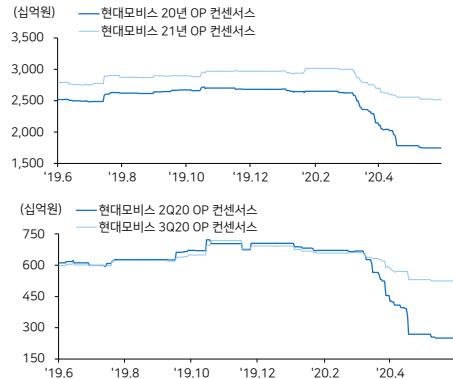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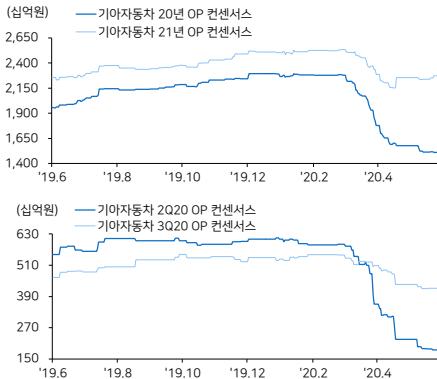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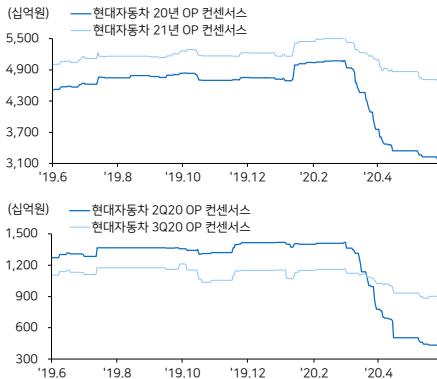
RA 이다빈

02.6454-48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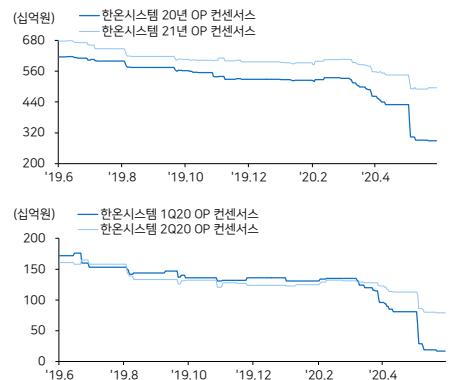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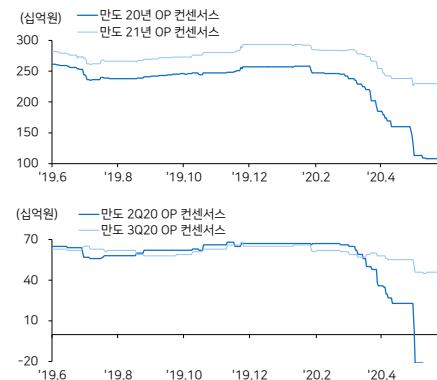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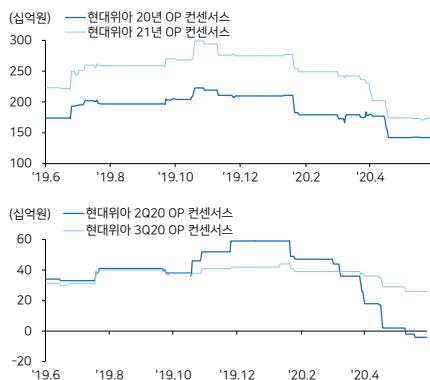
dabin.lee@meritz.co.kr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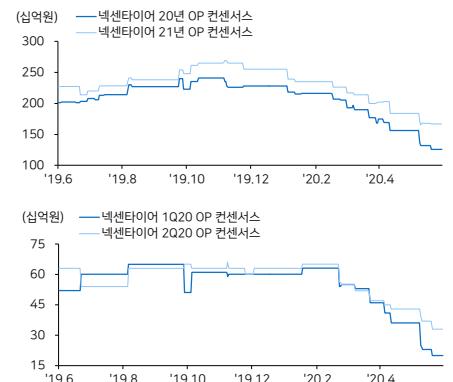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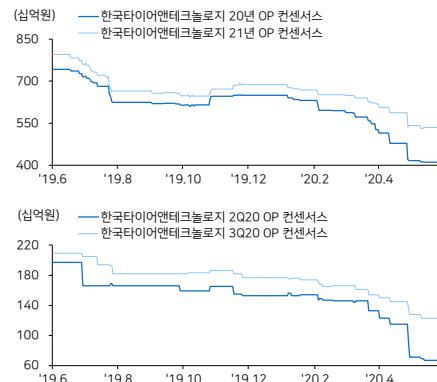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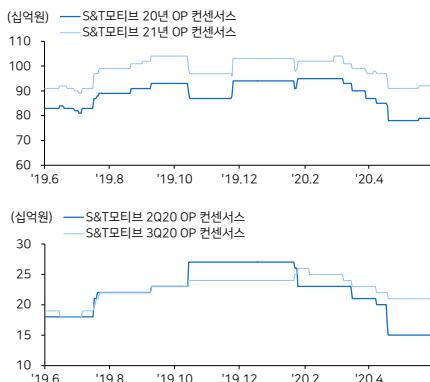
현대차 / 기아차 /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S&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현대·기아차 시장 선두업체로 (아이뉴스24)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의 글로벌 순수 전기차(EV)가 가속페달을 밟고 있음. 올 1분기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의 글로벌 EV 판매량이 세계 4위에 오르면서 선두권으로 치고 올라오고 있어서임.
<https://bit.ly/2XEYBE4>

한국의 벤틀리... 제네시스... 렉서스 비เคร (머니S)

'제네시스' 브랜드가 현대자동차로부터 독립한 지 약 5년이 됐지만 '한국형 프리미엄'을 내걸고 글로벌 프리미엄 자동차시장에 도전장을 내민 현대차의 노력도 조금씩 결실을 맺는 모습.
<https://bit.ly/2AeiatX>

현대차 '열린 현상' GV80 디젤 출고 증지 (연합뉴스TV)

현대차가 심한 진동 현상이 나타나는 불만이 잇따른 제네시스 GV80 디젤 모델 일부의 출고를 중단. 현대차는 5일 최근 GV80 디젤 모델 일부 차량에서 간헐적 진동 현상을 발견했다고 밝히고 출고 중단 사설을 알림.
<https://bit.ly/3dIXOHM>

현대모비스, 해외 영업·수주 '언택트 마케팅'으로 공략 (서울파이낸스)

현대모비스가 전통적 대면 접촉을 통해 해왔던 영업과 수주 활동을 다양한 언택트 마케팅으로 해외 수주 활로를 넓힘. 이는 코로나 19로 달라질 글로벌 경제·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영업 기회를 창출하기 위한 차원.
<https://bit.ly/37dD3lk>

달리는 '일본차' 위에 훨훨 나는 '한국차'(머니S)

한국의 현대자동차와 일본의 토요타자동차는 속명의 라이벌로 불림. 2015년 이후 현대차는 유럽과 미국 등 주요 자동차 시장에서 16%의 수상실적을 기록하며 저력을 과시하는 동안 토요타는 딱히 수상실적이 없는 상황.
<https://bit.ly/2zrfJLc>

현대차, 온라인 후 판매 국내만 '지지부진'은 왜? (조선비즈)

자동차 업체들이 코로나19를 계기로 비대면 온라인 판매 플랫폼 구축에 앞다투고 있음. 현대·기아차도 해외에선 적극적으로 온라인 판매망을 강화하고 있지만 국내 시장은 예외.
<https://bit.ly/3h3gIw>

반도체 다음 가던 자동차 수출...코로나에 '반토막' (한국경제)

코로나19으로 인해 수출이 끊긴 자동차 산업의 수출 기여도가 22년 4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로 떨어짐. 5월 자동차 수출은 약 2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의 절반 이하로 출연서 10년 9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
<https://bit.ly/2BjMKMD>

삼성·현대차 등 금융사 둔 그룹, 재무 악화면 개선계획 내야 (서울신문)

삼성·현대자동차 등 금융 계열사를 2곳 이상 보유한 복합금융그룹의 재무건전성이 나빠지면 앞으로 그룹 대표회사가 경영 개선 계획을 금융당국에 내야 함. 대기업 금융회사들을 한 금융그룹으로 보고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포석.
<https://bit.ly/2Y9SMxF>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지로서 오자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협력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